단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인문계열(오후)

[문제 1] 다음 제시문은 다른 사람과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글들이다. (30점)

1) [가]에서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 두 개를 찾은 후, 그 단어들을 이용하여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2) [가]에 제시된 태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징(단어) 하나를 [나]에서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다]의 예에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약탈을 금지시켰습니다.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와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터키의 이런 관용은 북만주에서 중국 대륙을 거쳐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 걸치는 역사의 대장정 속에서 길러 온 도량인지도 모릅니다. 대제국은 결코 칼이나 강제에 의하여 건설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출처: 이숭원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I』, 좋은책신사고, 316~318쪽.

[나]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출처: 고형진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 천재문화, 307쪽.

[다]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천일야화"는 아랍 세계의 식민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빅토리아 왕조 때 영국의 탐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리처드 버턴의 완역판이다. 1권이 출판되자마자 궁정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서민층에서도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때는 이슬람 세계가 군사적·문화적으로 쇠락하고 유럽 세계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동방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었다. 그 결과, "천일야화"는 세계 문학으로서의 변신을 이룩했다. 하지만 버턴은 동화로 알려졌던 이야기를 "남녀 간의 애환이 서린 애욕의 세계를 그린 어른들의 책"으로 왜곡시키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이슬람의 이미지가 호색, 폭력, 악의 화신처럼 그려지게 된 것이다.

출처: 이삼형 외(2013), 『독서와 문법 II』, 지학사, 251쪽.

[문제 2] 제시문 [가], [나]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여, [다]에 제시된 조선 사회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지니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만약 신분이나 계급, 인종 등에 의해 출생과 더불어 삶이 결정되는 사회라면, 그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발전이 어렵게 된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보장된다. 기회와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될 때 우리는 그 사회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다. 단순히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집단이 권리를 독점하는 사회 또한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출처: 문용린 외 (2011), 『고등학교 도덕』, (주)금성출판사, 80쪽.

[나] 우리는 동양의 지적 전통과 더불어 한국 특유의 사유 체계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족주의적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신장과 개인 및 집단 간의 화해, 공동체의 번영을 기약하는 도덕적 정신이 강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꾀하는 의식 또한 높다. 이러한 전통은 생명을 경시하며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절제와 양보, 겸손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전통은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무엇보다 인격 완성의 추구, 인간과 자연의 조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인류 공영의 지향 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전통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박찬구 외 (2011),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50쪽.

[다] 조선은 법제상 자유민인 양인과 부자유민인 천인으로 신분을 구분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많은 노비가 해방되었고, 향·소·부곡이 없어져서 이전보다 양인의 수가 늘어났고, 지위도 향상되었다. 양인은 국역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과거 응시 자격이 있어 벼슬을 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었다.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 등이 포함되었다.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는 등의 특혜를 누리기도 하였다. 중인은 기술직이나 향리, 서리직에 한정되었고,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한 농민은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여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천인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유교적 민본 정치의 핵심이 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본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토지 개간을 적극 장려하여 경지 면적이 고려 말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에 따라 국가가 상공업 활동을 통제하여 국내 상업과 무역, 화폐 유통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상공업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상공업과 무역 활동이 활발해졌다.

출처: 한철호 외 (2011),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 57~58쪽.

[문제 3]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라]의 정보 격차 현상을 설명하고,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마]의 전통적 경영자와 대비되는 '새로운 경영자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패러다임이란 '모델', '패턴', '전형적 예'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미국의 과학사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그의 저서 『과학적 혁명의 구조』에서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사고의 규칙이나 패턴이 있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외부 사물이나 현상을 대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필터 역할을 하며 기존 패러다임은 사고 및 가치 판단의 기존 틀이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견은 자신이 행동하던 모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패러다임 전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쿤에 의한 패러다임 개념은 사회 과학에서도 널리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였던 냉전 시대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이데올로기 경쟁(체제 경쟁)이었으나, 소련의 해체 후 경제 중심의 무한 경쟁으로 경쟁의 틀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데올로기 경쟁을 위해서 국방, 안보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기술들이 경제 중심의 무한 경쟁을 위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기업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출처: 출제진 집필.

[나] 장영실은 1441년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와 수표를 발명하여 하천의 범람을 예측하였으며,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격루를 만든 인물이다. 장영실은 동래현의 관노, 즉 노비였다. 조선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가 존재하였으나, 세종은 장영실의 신분이 아닌 재능을 보아서 종3품 대호군까지 신분을 상승시켰다.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세종의 새로운 인사 관리 때문에 장영실은 위대한 과학 기술자가 될 수 있었으며, 조선의 과학 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출처: 출제진 집필.

[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시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약 1년 반 전이었다. 당시 조정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해 올 가능성에 대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방향으로 애써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반드시 침공할 것이라 예측하고 전쟁을 준비했다. 지병(持病)을 앓고 있는데다 조정의 지원이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장군은 적군의 함선들과 기후, 지형지물, 해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전쟁 준비에 활용하였다. 주어진 여건에 비하면 준비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전이었다. 당시에는 배를 건조하는 재료로는 물에 뜨는 나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장군은 적의 총탄이 뚫지 못하게 배의 재료로 철판을 사용한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무와 철을 융합 활용하여 거북선을 건조하였다.

김좌진 장군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었으나, 부유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전쟁놀이를 하거나 말 타고 사냥을 하는 등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었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당시에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신분 의식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김좌진 장군은 집안의 노비를 모두 해방시키고, 소유한 전답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자진해서 상투를 자르고 90여 칸으로 된 자신의 집을 학교 교사로 사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사업에 나섰다.

출처: 출제진 집필.

[라] 정보 격차 현상

1. PC 기반 정보 격차 현황

구 분	연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 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외 계층	45.0	53.3	62.0	65.9	68.0	69.7	71.1	72.4	74.0
컴퓨터 보급률 (가구, %)	전체 국민	77.8	78.9	79.6	80.4	80.9	81.4	81.8	81.9	82.3
	소외 계층	48.7	54.2	60.1	63.4	65.1	66.2	67.2	67.7	68.7
인터넷 이용률 (%)	전체 국민	70.2	72.8	74.8	76.3	77.1	77.6	78.3	78.3	78.4
	소외 계층	24.9	29.4	35.1	40.1	41.7	43.0	44.3	45.6	46.8

2. 모바일 격차 현황 (2012년 기준, 신규 산출)

항 목	연도 / 구분	2011	2012
스마트폰 보유율 (%)	전체 국민	39.6	61.5
	소외 계층	8.6	21.7

항 목	격차 / 구분	모바일 접근	모바일 역량	모바일 활용	모바일 종합
일반 국민 대비 모바일 정보화 수준 (%)	일반 국민	100	100	100	100
	소외 계층	34.2	24.1	28.3	27.8

<용어 설명>
- 모바일 격차(Mobile-Divide)란 모바일 기기의 보유 정도, 사용 능력, 활용 정도 등에 의한 모바일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의 총체적 차이를 의미함.
- 모바일 종합은 모바일 접근(0.2), 모바일 역량(0.4), 모바일 활용(0.4)의 가중 평균치로 구함.
- 소외 계층이란 4대 소외 계층인 장애인·저소득자·장노년·농어민을 의미함.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정보 격차 실태 조사 결과, 2013.5.13. (재구성).

[마] 전통적으로 경영자(manager)란 기존의 조직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영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라 하면 기업의 사장을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의 교장, 군대의 지휘관, 종교 단체의 책임자도 경영자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 무한 경쟁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는 전통적 경영자와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출제진 집필

문제 1

□ 출제 의도

○ 각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터키의 이슬람이 기독교 문화를 대하던 바람직한 태도의 예를 들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용과 관대는 "강제", "약탈", "파괴"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 제시문 [나]는 정호승의 시인데, 제시문 [가]에 제시된 타자(타문화)에 대한 관용, 공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나무"가 고립된 개인을 의미한다면, "숲"은 그런 개인들이 평화적 공존을 위해 이룩해야 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상징한다.

○ 제시문 [다]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협된 해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관대를 중시하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다]의 예는 다른 문화와의 공존보다는 왜곡을, 관용보다는 정치적 이용(식민화)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이숭원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I』, 좋은책신사고, 316~318쪽.

○ [나]: 고형진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 천재문화, 307쪽.

○ [다]: 이삼형 외(2013), 『독서와 문법 II』, 지학사, 251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관대(함)", "관용" (가장 적절).
- "관대(함)", "관용" 중 하나와 "공존"을 답하는 경우 (적절).
- 그 외에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 (적절치 않음).

◈ 채점 기준

· "가장 적절"한 답을 하면 10점.

· "적절"한 답을 하면 7점.

· "적절치 않"은 답을 하면 평가자의 합당한 판단에 따라 0~2점 부여함.

○ 위 주제어(두 단어)를 이용하여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다른 문화와의 진정한 공존은 파괴나 약탈이 아닌 관대(함)와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위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에서 제시된 입장을 다른 문맥에서 찾아내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나]의 "숲"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의 상징이다.

○ [가]에서 제시된 태도에 근거하여 [다]의 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다]의 예는 타문화에 대한 관대, 관용이 아니라, 왜곡, 식민화를 보여주고 있다.

◈ 채점 기준

- [나]에서 "숲"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함.
- [나]의 "숲"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가]의 입장에서 [다]의 예에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 1)번 문항

[가]에서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두 단어는 "관대(함)"와 "관용"이다. 이 글은 소피아 성당의 예를 통하여 터키의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는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배제와 무시가 아닌 관대와 관용을 통하여 상호 공존의 길을 찾았다. 터키는 험난한 역사적 대장정의 경험을 통하여, 파괴나 약탈 대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두 문화의 평화적 공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문화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몸소 실천했다.

○ 2)번 문항

[가]에서 제시된 바, 다른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관대"와 "관용"이었다. [나]에서 이런 태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은 바로 "숲"이다. 이 시에서 "나무"가 (외로운) 개인을 상징한다면 "숲"은 그런 개인들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통해 형성하는 공동체를 상징한다.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의 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천일야화"의 보급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럽은 아랍 문화를 관용이 아니라 왜곡과 정치적 식민화로 대했다. 이런 태도는 공존이 아니라 지배/피지배의 폭력적 서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의 의미'와 '한국의 전통 사상'에 대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신분제에 기초한 조선 시대의 사회 제도에 적용하여 가치 판단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의로운 사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가를 토대로 제도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고유 전통이 가지는 의의를 파악하고 계승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국 조선 초기 신분 사회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 전근대성으로 인하여 정의롭지 못하다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시대사적 맥락 속에서 당시의 유교 질서를 충실히 구현하여 구시대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인정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시각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문용린 외 (2011), 『고등학교 도덕』, (주)금성출판사, 80쪽.
○ [나]: 박찬구 외 (2011),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50쪽.
○ [다]: 한철호 외 (2011),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 57~58쪽.

□ **평가 기준**

○ [가]에서 제시된 정의로운 사회에 필요한 덕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인간의 존엄성, 권리의 평등한 기회 등 정의로운 사회의 요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경우 10점.
·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9점을 부여함.

○ [나]에서 제시된 동양과 한국 전통 사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가치와 유용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절제, 화해 등의 도덕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물질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타인과의 공존을 의도한다는 등 핵심 내용을 서술할 경우 10점.
·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9점을 부여함.

○ [가]와 [나]에서 제시된 두 가지 시각에 비추어 조선 사회에 대하여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인권적으로 불평등한 신분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사회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역사 발전의 맥락에서 나름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동양과 한국 사상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

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10점.

· 인권적 측면에서 비판적인 결론만을 제시한 경우 등,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9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가]에서 제시된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개개인이 가치 있고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특정 신분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를 정의롭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에서 제시된 한국과 동양 사상의 전통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절제, 화해 등의 도덕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타인과의 공존을 의도하였다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오로지 양반 계층에게만 특권을 부여하고, 인간이면서도 물건으로 취급되는 노예 제도를 두었으며, 직역(職役)에 따라 차별을 용인하였던 조선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민 차별이 훨씬 극심하였던 이전의 고려 사회에 비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유교적 민본주의 하에서 전체 백성의 혜택을 위한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면모를 읽을 수 있으며, 상공업에 대한 차별 또한 유교적 검약의 실천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신분 사회는 인권적 정의에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역사 발전의 눈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제시문 [가]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마]에서 제시된 정보 격차 자료를 이해하여, [가]와 [마]의 상호 연관성을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②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적 핵심 개념인 패러다임 전환, 고정관념의 타파, 위험에 대한 도전 정신(모험 정신), 혁신, 창조적 파괴, 과학적 분석,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자 특성을 추출하는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함.

○ 문제와 관련된 제시문 및 자료의 핵심 내용

[가] 과학에서 사용되는 패러다임이란 개념은 사회 과학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거시적 패러다임의 변화(예: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경제 경쟁으로의 변화)는 정보 기술의 변화(예: 인터넷, 보안 기술의 상용화)를 가져오고,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또한 정보 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만든다.

[나] 조선의 과학 혁명을 이끈 과학 기술자 장영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신분제라는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한 세종의 인재 등용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는 [가]와 관련하여 세종은 패러다임 전환자이며, 현대적 의미에서 혁신적 인사 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경영자이다.

[다] 이순신 장군은 정확한 통찰력으로 전쟁이 날 것을 예측하고, 지병으로 인한 고통과 조정의 지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학적 준비를 하고, 철은 선박의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김좌진 장군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신분제라는 구 패러다임 속에서도 편히 지낼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신분제 폐지를 실천하고 미래를 대비한 교육·계몽 사업을 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두 장군 모두 미래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 의식, 진취성,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혁신의 경영자이다.

[라]에 제시된 표 중 'PC 기반의 정보화 격차'라는 연도별 자료에서는 일반 국민(전체 국민)과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모바일 환경의 도래와 함께 과거 'PC 기반의 정보화 격차'는 정보 격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보 격차의 측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것이 '모바일 격차'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소외 계층 간 'PC 기반의 정보화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모바일 격차'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마]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자란 제시 글 [가], [나], [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필요하다.

① 기본 패러다임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착한 패러다임 전환자의 성격 (통찰력, 미래 지향성).

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 (위험 감수성).

③ 기존의 패러다임(기존 제도, 규범, 질서, 의식의 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개방적 시각).

④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려는 자세 (유(有)에서 유(有)가 아닌,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자세) (창조성, 혁신성).

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세 (진취성).

□ **자료 출처**

○ [가]: 이상문(1994), 『글로벌시대의 초일류기업』, 명진출판사. 이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자가 작성함.

○ [나]: 출제자가 작성함.

○ [다]: 출제자가 작성함.

○ [라]: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 2013.5.13 (자료 재구성).

○ [마]: 권주형 외 3인(2013), 『고등학교 창업과 경영』, 천재교육. 이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자가 작성함.

□ **평가 기준**

○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라]의 자료에 나타난 정보 격차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가]의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라] 자료의 전체 국민과 소외 계층 간에 'PC 기반 정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모바일 중심의 정보 기술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신규 산출된 '모바일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의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라] 자료의 전체 국민과 소외 계층 간에 'PC 기반 정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모바일 중심의 정보 기술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신규 산출된 '모바일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적절하게 기술하면 15~20점.
- 제시문 [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나, [라]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5~10점.
- 제시문 [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나, [라]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명한다면 7~10점.
- 제시문 [가]와 [라] 자료의 두 가지 모두를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0~5점.
- 그 외의 경우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가 가능.

○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서 전통적 경영자와 대비하여 새로운 경영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가]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함.

- 제시문 [나]에서 세종대왕이 신분제를 넘어서 장영실을 발탁하여 기존 패러다임(신분제)의 창조적 파괴를 설명함.
- 제시문 [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 불확실성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도전 정신 및 진취성, 철을 사용하여 거북선을 만드는 창조성, 혁신성을 설명함. 김좌진 장군의 실질적인 세습제 폐지의 실천, 교육·계몽 사업이라는 미래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라]에서 기존 조직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전통적 경영자를 설명함.

◈ 채점 기준

-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변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세종대왕, 이순신, 김좌진 세 명 모두의 사례를 사용하여 나타난 특징 5가지 즉, **① (통찰력, 미래 지향성), ② (위험 감수성), ③ (개방적 시각), ④ (창조성, 혁신성), ⑤ (진취성, 도전 정신)** 중 3가지 이상을 전통적 경영자와 대비하여 새로운 경영자의 특성으로 설명한다면 15~20점.
-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변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 [다]의 사례를 사용하여 3가지 미만을 설명한다면 10~15점.
-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변화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다]의 사례를 사용하여 3가지 이상을 설명한다면 7~10점.
- 기타, 위의 경우보다 부족한 경우 0~7점.
- 그 외의 경우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부분 점수가 가능.

□ 예시 답안

○ 예시 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정보 기술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라]의 연도별 표에 근거하면 전통적 'PC 기반의 정보화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모바일 격차'는 새로운 현상으로,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장영실을 발탁한 세종대왕이나 [다]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한 일, 그리고 김좌진이 노비를 해방시킨 일 등은 모두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혁신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의 전통적 경영자와 새로운 경영자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영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과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 격차의 예에서 보듯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자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기존의 것을 혁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단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영 활동보다는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정신과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영자가 새로운 경영자이다.

○ 예시 2

[라]의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민과 소외 계층 간 'PC 기반의 정보화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최근 모바일 중심으로 정보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모바일 격차'를 보면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에서 제시한 패러다임의 변환이란 일종의 고정관념,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것으로서 [나], [다]에서 제시된 위인들의 예에서도 나타나 있다. [나]에서 세종대왕은 신분제를 타파하여 장영실을 발탁하고, [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전쟁 발발을 예측하고, 철을 사용하여 거북선을 개발하는 획기적 창조성을 보였으며, 자신의 지병과 조정의 지원이 없는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전쟁에 대비하는 진취성을 보였다. 김좌진 장군은 신분제를 타파하여 노비를 해방하고, 미래의 독립 운동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존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전통적 경영자와 달리 급변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 새로운 경영자는 위인들이 보여준 예와 같이 불확실성 하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취성(도전 정신)과 더불어 개방적인 사고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혁신성이 필요하다.